

「사업본부」 |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



▲ 알제리 2차 연수 수료식 기념촬영(본부 14층 교육장, 12월 3일)

이번호 탐방의 주인공은 우리 공단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업본부’다. 지난 1월 2일 부임한 김주남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본부는 사업기획팀(팀장 겸임 김주남) 및 설계심사팀(팀장 정덕수) 2개 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업기획팀은 국내외 신규사업 개척 및 확보, 기술용역업무 발굴, 수임 및 계약, 선박의 건조감리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설계심사팀은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설계용역업무 수행, 선박의 설계관련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김주남 사업본부장

수익사업의 확대

김주남 사업본부장은, 사업본부에서 이루어야 할 숙제는 수익사업 확대라고 밝히며, “공단 고유의 업무인 정부대행 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여유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검사 수수료 수입의 3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익창출은 물론 기술력 향상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본부가 공단의 전문 분야별 기술인력 육성의 터전으로 발돋움할 것과 타 본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였다.

목표 초과 131% 실적 달성

사업본부는 지난해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131%의 실적을 거둔 것을 비롯해 KOICA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 사업을 수임하여 현재 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안전도 확인 검사 및 관련 설계업무를 수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6000톤급 아스팔트 운반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기타 신규용역사업으로서 어장정화전용 선박에 대한 시설확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 수상관광호텔 설계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설계심사팀 직원들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 사업

KOICA를 통한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개발국에 대한 선박 안전기술 지원의 필요성과 이사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공단이 알제리 수출어선 관련 설계에 관여할 당시 알제리에 선박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알제리 주재 대사관과 외교부, KOICA, 해양수산부 등과 접촉하여 알제리의 선박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KOICA가 2006년 9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2월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김주남 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공단이 해외 지원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수행하는 것과 KOICA 역시 선박관련 지원이 처음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공단의 전문가(나형진 부장, 홍춘선 부장, 민영훈 대리)들이 알제리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제1차 파견활동시 열린 알제리 교통부국장 등 관계자회의

올해 목표와 역점사업

사업본부는 올해도 목표치 초과 달성을 위해 대형 용역사업 수입, 알제리 2차사업 추진 및 동남아 지역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해양경찰청의 300톤, 500톤급의 건조 감리에 대하여도 공단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최고의 함정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관광호텔에 대해선 국내 최초인 만큼 검사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여 기술 공유 및 축적에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김주남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포부를 가지고 우선 자기 분야에서 공단내 최고가 되고 다음엔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목표 및 방법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고, 그 결과 “공단이 기술단체로서 외적인 팽창보다내적인 충실함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 Inside



사업기획팀 박종만 부장

외항선사에서 1등기관사로 다양한 경력을 소유한 박종만 부장은 1982년 바다생활을 끝으로 공단에 입사하여 지난 25년 동안 각 지부를 돌며 근무한 베테랑 검사원으로 남달리 학구열이 깊어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을 전공하는 등 배움을 취미로 삼는 직원이다. ISO심사분야에서도 전문가로 공단의 품질경영심사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팀에서는 선박건조 설계·감리 입찰업무 담당으로서 폭넓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만 부장은 후배검사원들에게 “최고의 Surveyor로서 프로정신을 갖추고 능력을 키워 각자의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였다.

설계심사팀 박정현 대리

설계심사팀 박정현 대리는 팀의 막내로서 입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된 싱싱한 사원이다. 언제나 콧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朴丁(일꾼정)顯(나타날현) 대리. 밝게 나타나는 일꾼이라는 그 이름 처럼, 팀에서 기관관련 설계 업무, 품질, 행사, 환경 및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일도 즐겁고 마냥 행복하다는 박정현 대리는, 외부고객 뿐 아니라 내부고객들로부터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취재 : 기획홍보팀 황주원